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발 의 자: 박왕규 의원 등 7명(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임미연, 장호섭, 정창근)
- 발의일자: 2023. 1. 20.(금)
- 회부일자: 2023. 1. 20.(금)
- 상정 및 의결: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 2. 1)

2. 제정이유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에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과 약물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엔이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 20명 미만일 때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한국은 2016년 이미 상실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한 조사⁵⁾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 특히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0.84%에서 2022년 6월 3.41%로 약 3배 이상 늘어났음.

연령별 마약사범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연령미상
2017년	14,123	119	2,112	3,676	3,919	4,080	217
2018년	12,613	143	2,118	2,996	3,305	3,809	242
2019년	16,044	239	3,521	4,126	3,487	4,152	519
2020년	18,050	313	4,493	4,516	3,599	4,655	474
2021년	16,153	450	5,077	4,096	2,670	3,542	318
2022년 6월	8,575	292	2,717	2,161	1,309	1,853	243

5) 2022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4월에서 2022년 4월까지 1년간 진행한 2차 '하수역학기반 신·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마약류는 필로폰 27곳, 엑스터시 21곳,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은 4곳이다.

- 또한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말기암환자 진통용으로 사용되는 펜타닐이 사용⁶⁾되는 등 연령·성별·지역에 관계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달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반상담건수는 2019년 1,066건에서 2022년 1,179건으로 증가했고, 조기선별검사 또한 2019년 102건에서 2022년 228건으로 증가하는 등 약물 오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조기선별 및 단기개입서비스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일반 상담	소계	1,066	817	1,091	1,179
	방문	3	4	180	114
	전화	235	573	598	648
	내소	828	240	313	417
조기선별검사		102	57	232	228

- 더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조례안은 담배, 알코올 등을 포함한 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청소년 등에게 실시하고,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중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6) 2021년 5월 20일 MBC NEWS 참고